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3년 1월 (제702호)

전월 대비 3.3% 감소(954,010건)

교육부,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 경기교육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전월 대비 증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매년 반복되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여 2월의 관심키워드로 ‘봄철 산불’ 선정

국민의 소리

No. 702

월간 동향

2023년 1월

01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02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03 2월의 관심키워드 : 봄철 산불 10

01 | 민원 동향

민원 추이

2023년 1월 민원 발생량은 총 954,010건

전월(986,935건) 대비 3.3% 감소, 전년 동월(1,063,868건) 대비 10.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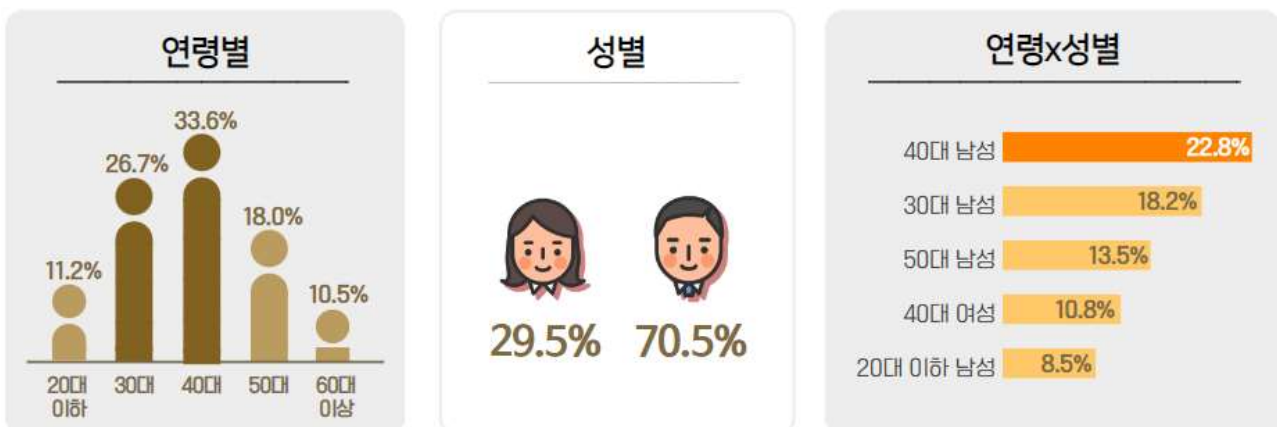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을)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3.2.1. 10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33.6%) 및 30대(26.7%), 성별로는 남성(70.5%)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2.8%), 30대 남성(18.2%), 50대 남성(13.5%)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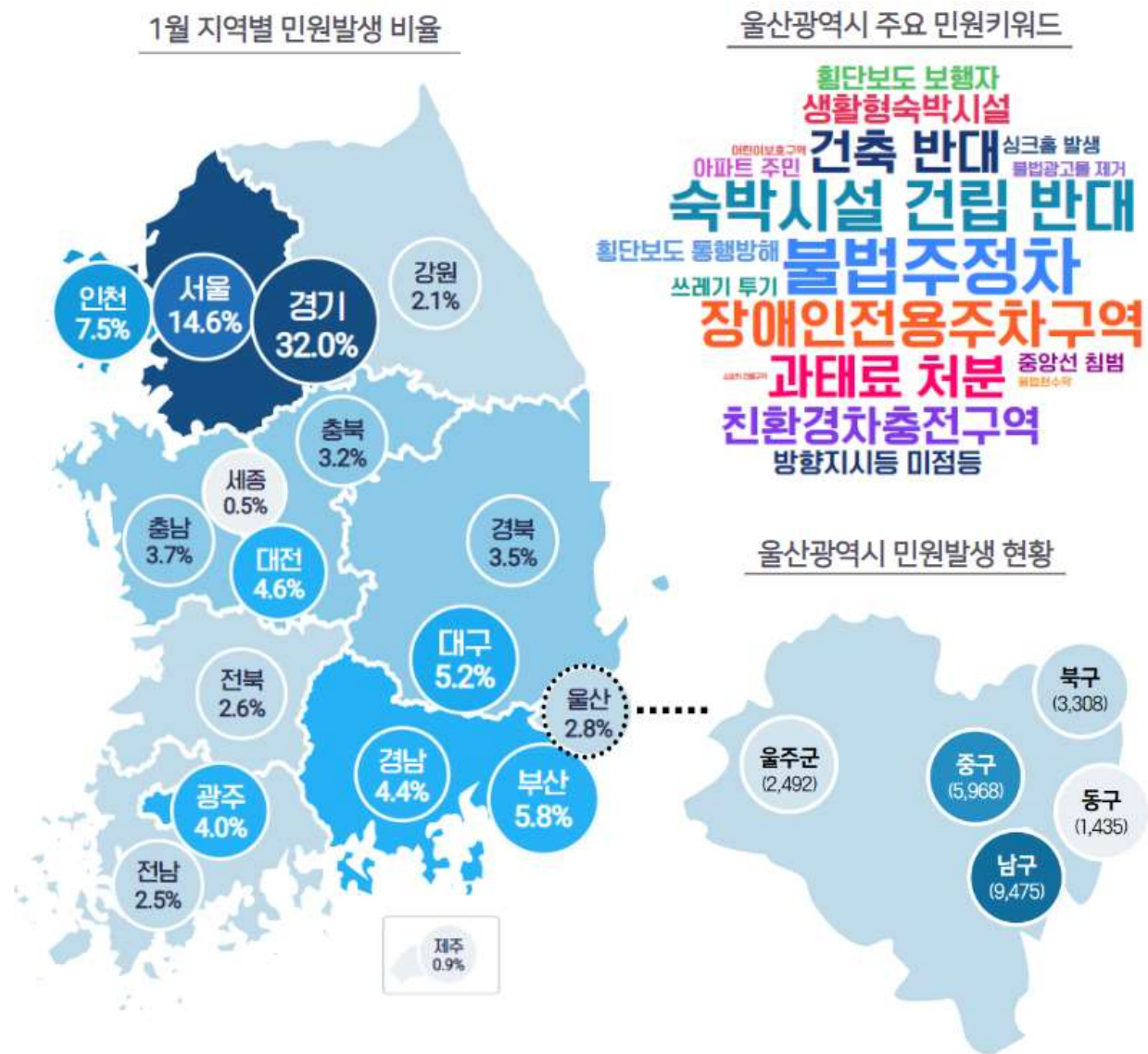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194,846건 대상

01 |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32.0%(257,693건), 서울 14.6%(117,984건), 인천 7.5%(60,712건), 부산 5.8%(46,702건), 대구 5.2%(42,131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4.1% 차지
아파트 앞 고층 숙박시설 건축허가 반대 등 **울산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 (12.1% ↑), 울산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남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9,475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806,214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01 |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¹⁾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60.3%)가 가장 많고, 행정안전(7.8%), 도로(7.0%), 환경(3.2%), 주택건축(3.0%), 교육(2.5%), 산업통상(2.1%)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행정안전	도로	환경	주택건축	교육	산업통상	경찰·검찰·법원
60.3%	7.8%	7.0%	3.2%	3.0%	2.5%	2.1%	2.1%
보건	문화	방송통신	노동	수자원	복지	국방	재정
1.5%	1.3%	1.2%	0.9%	0.9%	0.8%	0.8%	0.7%
도시	농림축산	과학기술	세무	체육	관광	해양수산	외무통일
0.7%	0.7%	0.5%	0.4%	0.4%	0.4%	0.3%	0.3%
							우정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919,082건 대상

증감을 상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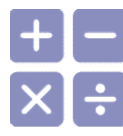
증 가 범죄 혐의로 소송 중인 피고인이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에 공개 사과 및 방송 폐지 요구 등 **방송통신** 분야 증가



방송통신
28.0% ↑



복지
23.4% ↑



세무
23.2% ↑



외무통일
16.0% ↑



국방
16.0% ↑

감 소



해양수산
32.1% ↓



주택건축
24.3% ↓



도시
20.0% ↓



행정안전
1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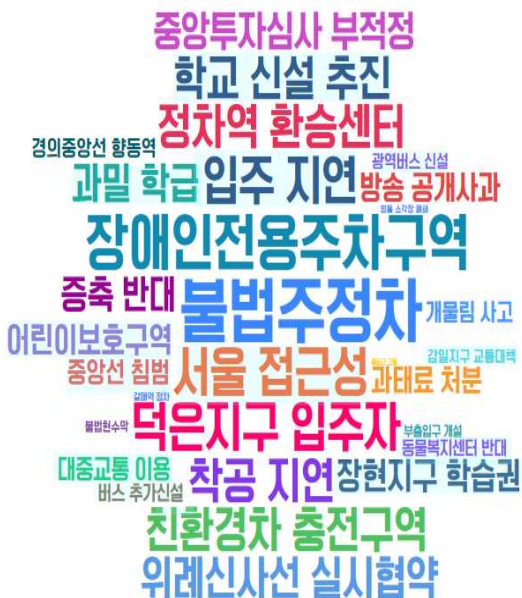
문화
15.1% ↓

1) 민원유형의 변화 반영 및 통계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민원 분류체계 개선(민원 분야별 통합·재분류)

주요 민원키워드

1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입주 지연, 과밀학급, 대중교통 이용 등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광역버스 신설, 경의중앙선 향동역, 출퇴근 교통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6	방송 공개 사과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7	과태료 처분
3	친환경차 충전구역	18	중앙선 침범
4	덕은지구 입주자	19	대중교통 이용
5	서울 접근성	20	광역버스 신설
6	정차역 환승센터	21	경의중앙선 향동역
7	입주 지연	22	버스 추가 신설
8	착공 지연	23	동물복지센터 반대
9	증축 반대	24	개 물림 사고
10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25	감일지구 교통대책
11	과밀학급	26	부출입구 개설
12	중앙투자심사 부적정	27	불법 현수막
13	학교 신설 추진	28	갈매역 정차
14	장현지구 학습권	29	영통 소각장 폐쇄
15	어린이보호구역	30	출퇴근 교통

※ Top 30 이달 키워드(11월 대비) : 게임물 등급분류,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 통합개발, 역주행 발생 등 20개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 장애인 전용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관련
- 고양 덕은·향동지구, 하남 감일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요청,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조속 추진 촉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구리시 갈매역 정차 요구 등 ‘**교통환경**’ 관련
- 화성시 아파트 입주 지연 반대, 위례신도시 교육영향평가(학생 배치 관련) 지연으로 인한 사전청약 아파트 착공 지연에 이의, 서울 송파구 동물복지센터의 위례신도시 내 건립 반대, 공원과 연결된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요청 등 ‘**아파트 및 거주환경**’ 관련
- 신도시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증축에 반대, 중앙투자심사에서 3차례 반려된 시흥 장현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 학교 설립 촉구 등 ‘**교육환경**’ 관련
- 범죄 혐의자의 방송 출연 관련 프로그램 제작진에 사과 요구 및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신고

02 기관별 동향²⁾

중앙행정기관

1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191,175건으로 전월 대비 **2.2% 증가**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교육부, 복지부 등, 감소한 기관은 대검찰청, 해수부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2.12월	'23.1월	증감률
경찰청	98,147	95,879	-2.3%
국토부	20,000	23,864	19.3%
고용부	8,966	9,195	2.6%
국방부	5,460	6,418	17.5%
교육부	3,955	5,157	30.4%
식약처	4,650	4,775	2.7%
국민권익위	3,978	4,709	18.4%
대검찰청	6,683	4,549	-31.9%
복지부	2,338	3,018	29.1%
행안부	2,558	2,762	8.0%
과기정통부	2,526	2,388	-5.5%
해수부	2,777	2,378	-14.4%
국세청	2,107	2,377	12.8%
법무부	1,916	2,094	9.3%
환경부	2,133	2,018	-5.4%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2.12월	'23.1월	증감률
여가부	147	302	105.4%
문화재청	105	161	53.3%
산업부	736	1,089	48.0%
인사처	631	877	39.0%
금융위	375	511	36.3%
교육부	3,955	5,157	30.4%
복지부	2,338	3,018	29.1%
외교부	982	1,237	26.0%
국가보훈처	544	685	25.9%
공수처	538	676	25.7%
방송통신위	154	189	22.7%
국토부	20,000	23,864	19.3%
국민권익위	3,978	4,709	18.4%
국방부	5,460	6,418	17.5%
국가인권위	385	441	14.5%

※ 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교육부

○○대학교 입학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 및 입시 관련 감사 요청(3,155건), 유보통합* 반대(392건) 등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해 '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복지부

'21년 출생아의 부모급여 지급 제외 관련 항의(181건) 등 * '22년 출생아부터 지급

여가부

비동의간음죄 도입 관련 찬반갈등(71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축소 반대(62건) 등

문화재청

마라도 뿔쇠오리 개체 보전을 위한 공청회에 길고양이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의 참석 반대(24건) 등 * 고양이는 뿔쇠오리(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의 천적으로 개체 감소 원인으로 추정됨

2) '23.2.1. 10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02 | 기관별 동향

지방자치단체(광역)

1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79,067건으로 전월 대비 **13.6% 감소**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제주, 대구, 경기, 울산 등 8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인천, 경북, 서울 등 9개 기관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기관명	'22.12월	'23.1월	증감률	기관명	'22.12월	'23.1월	증감률
서울	70,200	57,968	-17.4%	제주	241	485	101.2%
대구	2,703	4,437	64.2%	충남	377	387	2.7%
대전	4,421	4,098	-7.3%	강원	305	328	7.5%
세종	2,992	2,858	-4.5%	충북	277	298	7.6%
경기	2,143	2,683	25.2%	경남	313	281	-10.2%
인천	3,990	1,665	-58.3%	전남	321	275	-14.3%
광주	1,123	1,229	9.4%	경북	311	244	-21.5%
부산	1,037	932	-10.1%	전북	207	195	-5.8%
울산	597	704	17.9%				

※ 1월 민원발생량 순

[주요 민원 증가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꽃자왈에 조성하는 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반대(174건) 등 * 환경파괴 우려

대구광역시

요지 불명 민원(3,639건), 도로시설물 파손 및 생활안전 신고 등

경기도

남양주시에 경기도의료원 설립 요청(608건),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 사업* 관련, 부천시의 피해 예방을 위한 의견 제시(122건) 등 * 부천시역 도로 연결을 위해 부천시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천시는 교통 정체 등을 우려하여 지자체간 이견 지속

[분야별 현황]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교통**,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 요청 등 **행정안전** 분야가 많이 발생



① 교통(57.9%)



② 행정안전(13.1%)



③ 도로(10.8%)



④ 주택건축(3.2%)



⑤ 환경(2.6%)

02 | 기관별 동향

지방자치단체(기초)

1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627,160건으로 전월 대비 **3.3%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서울 송파구 등,
감소한 기관은 서울 강남구, 경기 화성시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2.12월	'23.1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25,704	27,644	7.5%
경기 고양시	20,848	20,866	0.1%
충북 청주시	13,711	14,727	7.4%
경기 화성시	19,162	13,914	-27.4%
서울 강서구	11,757	12,284	4.5%
경기 성남시	12,573	12,250	-2.6%
서울 관악구	12,426	12,202	-1.8%
경남 창원시	10,738	11,385	6.0%
충남 천안시	10,442	10,408	-0.3%
서울 강남구	15,832	10,339	-34.7%
서울 서초구	12,341	10,204	-17.3%
경기 평택시	10,421	9,830	-5.7%
서울 송파구	8,630	9,549	10.6%
서울 마포구	10,657	9,164	-14.0%
대전 서구	9,312	9,099	-2.3%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2.12월	'23.1월	증감률
전북 순창군	81	157	93.8%
전남 신안군	75	143	90.7%
강원 정선군	241	443	83.8%
전북 고창군	155	284	83.2%
전남 진도군	135	233	72.6%
전북 무주군	93	160	72.0%
전남 영광군	196	297	51.5%
경기 과천시	655	990	51.1%
경북 군위군	67	101	50.7%
강원 화천군	100	149	49.0%
전북 남원시	513	733	42.9%
전남 담양군	187	251	34.2%
전북 임실군	143	189	32.2%
전남 장성군	231	302	30.7%
울산 북구	1,962	2,539	29.4%

※ 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동물보건복지센터 설치 반대(2,333건) 등 * 센터 건립에 따른 소음, 위생, 개 물림 사고 등 피해 발생 우려 및 센터 위치 변경 요구
경기 수원시	시행사가 아파트 부지 내 대량의 매립폐기물(약 16만t) 발견 사실을 분양 당시 입주예정자에 미고지한 것에 대한 보상 요구(3,211건) 등
전북 순창군	불법 개농장·도축장 폐쇄 요청(80건) 등 * 순창군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축시설이 없는 것으로 답변

02 | 기관별 동향

교육청

1월 교육청 민원은 총 18,308건으로 전월 대비 **12.7% 증가**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경기, 울산, 제주, 충북 등 4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세종, 경북, 전남 등 13개 기관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기관명	'22.12월	'23.1월	증감률	기관명	'22.12월	'23.1월	증감률
경기	11,567	14,806	28.0%	충남	175	157	-10.3%
서울	1,364	984	-27.9%	전북	172	139	-19.2%
경남	318	310	-2.5%	대전	158	132	-16.5%
인천	343	281	-18.1%	광주	141	123	-12.8%
부산	421	266	-36.8%	울산	84	107	27.4%
충북	198	216	9.1%	전남	181	103	-43.1%
대구	291	205	-29.6%	세종	196	74	-62.2%
경북	433	189	-56.4%	제주	48	59	22.9%
강원	160	157	-1.9%				

※ 1월 민원발생량 순

[주요 민원 증가 사례]

경기교육청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의 착공 지연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육환경영향 평가 처리 요청 및 기존 초등학교 증축을 통한 학생 배치 관련 주민 갈등 (8,832건) 등 * LH와 교육청간 엇박자로 학생 배치 및 착공 지연 문제 발생, 학생 수 증가 대책으로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것에 대해 기존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입주예정자들은 찬성하는 등 집단갈등 발생

울산교육청 중학교 1~4지망 무작위 추첨에도 미배정된 학생은 희망과 무관한 학교로 가야 하는 배정 방법 개선 요구, 초등학교 앞 44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반대 등

제주교육청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요청, 학급편성 등 학교 행정 관련

02 |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1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38,266건으로 전월 대비 **12.4%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감소한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2.12월	'23.1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8,177	5,594	-3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96	4,542	1047.0%
게임물관리위원회	7,103	4,280	-39.7%
금융감독원	2,779	2,758	-0.8%
한국도로공사	2,442	2,184	-10.6%
한국소비자원	1,701	1,586	-6.8%
한국산업인력공단	2,327	1,439	-38.2%
한국전력공사	1,709	1,169	-31.6%
법원행정처	1,079	1,006	-6.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03	945	4.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823	841	2.2%
대한법률구조공단	779	701	-10.0%
한국철도공사	736	571	-22.4%
국민건강보험공단	617	561	-9.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4	530	3.1%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2.12월	'23.1월	증감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96	4,542	1047.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4	214	791.7%
주택도시보증공사	155	221	42.6%
한국인터넷진흥원	305	374	22.6%
국민연금공단	118	144	22.0%
인천국제공항공사	115	136	18.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1	182	13.0%
한국교통안전공단	104	111	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03	945	4.7%
한국자산관리공사	107	111	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4	530	3.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90	195	2.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823	841	2.2%

※ 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범죄 혐의자가 출연했던 프로그램 제작진에 공개 사과와 방송 폐지 요구 (3,791건) 등 * 추가조작 혐의로 소송 중인 피고인의 방송을 신뢰한 시청자에 피해 발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관련 적용 대상 등 질의(143건)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남양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사업비대출보증 요청(45건) 등 * 시공사간 소송으로 대출 반려

03 2월의 관심키워드 : 봄철 산불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매년 반복되는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여 **민원예보 발령**

* 최근 4년간 대형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44%의 산림이 훼손되고, 6천억 원 이상의 피해 발생 ('19.4월 강원 고성, '20.4월·'21.2월 경북 안동, '22.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 [출처: 산림청 등]

민원 추이

최근 3년간('20~'22)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은 총 7,793건
전체 민원의 40% 이상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발생, '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2.38배 증가

* 최근 10년간('12~'21) 산불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은 2~5월에 집중
(전체 산불 발생건수의 70%, 피해면적의 95% 차지) [출처: 산림청]

< 최근 3년간('20~'22) 월별 평균민원 추이 및 산불 발생 현황> <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민원건수>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73.8%)이 여성(26.2%)보다 많고, 연령별로 40대(25.1%), 30대(24.1%), 50대(24.0%), 60대(14.6%), 20대(8.9%)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3,554건(전체의 45.6%), 연령 정보 확인 가능 3,199건(전체의 41.0%)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25.8%), 강원(11.4%), 경북(10.8%), 서울(10.1%)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7,327건(전체의 94.0%)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68.8%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25.2%, 공공기관 5.6%, 시도교육청 0.4% 등의 순

03 | 2월의 관심키워드 : 봄철 산불

민원 사례

[담배꽂초 무단투기 등 산불위험 신고 및 단속 요청]

- 전국적으로 산불이 크게 난 이 시국에 도로 양옆이 숲인데도 차량 바깥으로 담배꽂초를 버리는 차가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22.3월, 부산광역시 금정구)
- 바로 뒤에 야산이 있음에도 몇 달째 드럼통에 쓰레기를 불법소각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이 심할 때인데, 피해가 생길까 조마조마합니다. ('22.2월, 경기도 화성시)
- 산 정상에서 누군가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부탄가스 등의 쓰레기를 보았습니다. 산이 바짝 마른 건기만이라도 순찰을 요청드립니다. ('22.3월, 경기도 안양시)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및 시설물 설치·보수 요구 등]

- 3년 전처럼 또 산불이 나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개선된 것은 별로 없는데, 소방차가 마을 끝까지 들어올 수 있는 소방도로가 확보된다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3월, 강원도 강릉시)
- 산에 주민들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접근이나 대피가 어려운 실정인데, 산에 임도를 시급히 개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2.3월, 경상북도 안동시)
-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산불이나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주시면 초기 화재진압에 많은 도움이 되어 산불로부터 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4월, 경상북도 경주시)
- 휴양림 등산로에 비치된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이 텅 비어있습니다. 수년 전 산불로 산림이 불탄 잔해가 아직 있는데, 텅 빈 보관함을 보니 황당하네요. ('22.3월, 충청북도 괴산군)
- 산불감시초소가 운영되지 않는 늦은 밤에 불을 피우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을 제대로 안 끈 상태에서 바람이라도 불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 방법용 CCTV를 설치해주세요. ('22.2월, 경상남도 창원시)

[현수막 부착 등 산불 방지를 위한 계도 요청]

- 약수터 부근에 담배 피고 함부로 담배꽂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산불위험 경고 현수막 부착하여 경각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22.4월, 경기도 시흥시)
- 불법소각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불법소각을 하는 지역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2.5월, 경상북도 김천시)

03 | 2월의 관심키워드 : 봄철 산불

민원 사례

[재난 문자 지연 불만 및 너무 잦은 산불방송으로 인한 피로 호소]

- 엿저녁 발생한 산불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재난 문자 하나 없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지인들도 전화가 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재난 문자를 보내서 주변 상황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22.5월, 경상남도 김해시)
- 해마다 이맘때면 하는 산불 예방 방송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마을회관에서 아침저녁으로 방송하고, 확성기 차량도 하루 서너 번씩 돌아다닙니다. 제발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소리나 횃수를 줄여주세요. ('22.12월, 경상북도 구미시)

[산불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이의]

- 90세가 다 되신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신 집이 이번 산불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파된 경우 1,600만 원 지원한다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나요. 다시 잘 검토하셔서 이재민들을 도와주세요. ('22.3월, 행정안전부)
- 동해안 산불로 음식점이 전소되었지만, 상가는 피해보상이 안 된다네요. 대출금도 아직 남았는데, 생계유지가 어려운 암담한 상황입니다.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희가 작은 희망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22.3월, 강원도 동해시)

[화재진압에 활용된 민간자원 보상 등 기타 요구사항]

- 산 인근에 난 불을 제가 저희 집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서 산으로 불이 번지는 걸 막았는데, 다 사용한 소화기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돈 주고 산 소화기로 목숨 걸고 불을 꺾는데도 소화기 하나 보상 못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22.3월, 충청북도 진천군)
- 혼자 동분서주해서 화재를 초기 진압했는데 상장 하나도 주지 않네요. 상을 바라고 화재를 진압한 건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에게 아무 보상도 없다는 게 실망스럽습니다. ('22.3월, 전라남도 순천소방서)
- 오래전 산불 발생 후 산불 고사목을 벌채하여 야적하던 중에 태풍으로 벌채목이 계곡을 타고 내려와 교량 등을 막아 범람 피해가 상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도 시급하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홍수 등의 재해에도 대비 부탁드립니다. ('22.3월, 경상북도 울진군)
- 등산로 입구 앞 흡연으로 인해 산불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담배꽂초를 끄지도 않고 산 아래 낙엽에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등산로 입구와 그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월, 경기도 화성시)

알림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2020년 2월 3일 개통하였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

담당자 안내

목 차	담당자	연락처
01. 민원 동향	박경현 주무관	044-200-7287
02. 기관별 동향		
03. 2월의 관심키워드		
시스템 이용 문의	HelpDesk	070-4108-3625